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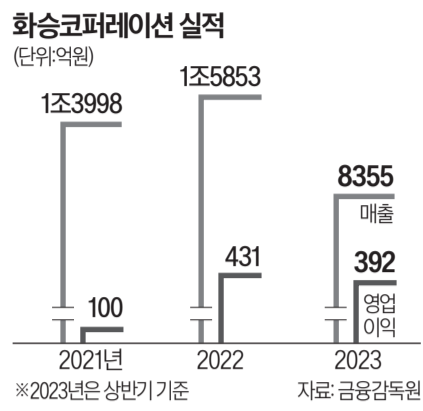
신발업체서 '산업용 고무巨人' 된 화승

1950년대 부산에서 고무신을 만들며 출발한 회사가 세계 시장에서 손꼽히는 산업용 고무 생산 기업으로 우뚝 섰다. 신발을 넘어 고무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 부품산업에 뛰어든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기아뿐 아니라 벤츠, BMW, 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유수 모빌리티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화승코퍼레이션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6일 여의도 화승코퍼레이션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허성룡 대표는 “고무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라는 예상 밖 내용으로 말문을 열었다. 허 대표는 “수십년간 쌓인 노하우 덕에 확보한 고무 배합 기술이 2000여 종에 달한다”며 “자동차뿐 아니라 에너지 발전,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테크기업’으로서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화승코퍼레이션은 지난해 매출 1조5853억원, 영업이익 431억원을 거뒀다. 올해 상반기에도 자동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매출 8355억원, 영업이익 39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11%, 영업이익은 4.5배 증가했다.

고무는 크게 타이어 등에 쓰이는 범



허성룡 화승코퍼레이션 대표

매출 1.5조 ... 특수고무 1위 군건 자동차·방산·발전시장도 개척

용고무와 화학제품에 들어가는 특수고무로 나뉜다. 화승코퍼레이션은 국내 특수고무업계 독보적인 1위다. 특수고무는 200도 넘는 고온 조건에서도 탄성을 유지해야 한다. 화승코퍼레이션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무 제품 중에 타이어를 제외하고 직접 만든 제품이나 만들 수 있는 소재를 공급한다. 주요 제품으로 외부 소음, 빗물, 먼지의 차내 유입을 막아주는 실링 제품(웨더 스트립)과 각종 오일류·유압유를 자동차 주요 장치에 전달하는 고무호스 제품 등이 있다.



허성룡 화승코퍼레이션 대표가 부산 기장군 영례공장에서 고무 대체 친환경 제품인 TPE(열가소성 엘라스토퍼)를 살펴보고 있다. 화승코퍼레이션 제공

화승은 빼어난 기술력을 갖춘 덕분에 최근 방산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이뤄냈다. 허 대표는 “해군 잠수함이 적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스텔스 기능 중 하나로 음향 흡수체를 생산해 공급한다”며 “수리용 헬기 연료탱크를 고무로 국산화해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존에 철강이 들어가던 부분을 고무 제품으로 대체해 무게가 가벼워지고 용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허 대표의 설명이다.

화승코퍼레이션의 야심작은 신소재 ‘TPE(열가소성 엘라스토퍼)’다. TPE는 부드러운 감촉과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특성을 고무 같은 고무 대체 소재로 주목받는다. 소재 특성상 성형이 쉬워 첨가제 등의 추가 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고무 제품보다 환경호르몬 등 유해 물질이 덜 들어있는 데다 100% 재활용이 가능해 친환경 소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자체 개발했을 뿐 아니라 양산해 제품 생산 공정에 투입하고 있다.

1985년 화승과 인연을 맺은 허 대표는 입사 40년을 앞두고 있다. 허 대표는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형창 기자

“섬유 생산지역은 도시 광산”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변신

섬유 업사이클링사 세진플러스

“섬유 생산 밀집 지역은 ‘도시 속 광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상월곡동 사무소에서 만난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는 폐섬유를 주요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광산에 비유했다.

세진플러스는 버려지는 섬유를 업사이클링하는 데 특화된 기업이다.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더한 새 제품으로 재생산한다는 의미다. 봉제 밀집 지역 등에서 나오는 헌옷, 불법으로 버려지는 옷 등을 모아 내장재, 외장재, 단열재, 벽 마감재 등으로 활용 가능한 건축자재를 만든다.

인터뷰를 한 사무소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아이스팩 수거함(사진) 등 다양한 폐섬유 업사이클링 제품을 볼 수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하루에 발생하는 국내 섬유 폐기물은 약 1497t이다.

세진플러스의 주요 제품은 업사이클 건축용 친환경 섬유 패넬인 ‘플러스넬’이다. 폐섬유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 솜뭉치처럼 모으고 ‘니들 펀칭’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거쳐 섬유끼리 단단히 엮은 뒤 반용융과 압축, 순간냉각을 거

쳐 만든다. 유해한 접착 성분이 들어가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다.

기업가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 차원에서 세진플러스를 찾는다. 현대자동차는 서울 양재동 사옥 전시장의 마감재에 버려진 현수막으로 제작한 플러스넬을 적용했다. 의류 전문기업 한섬은 매년 재고 의류로 제작한 플러스넬을 여의도 현대백화점 내 의류매장 피팅룸 마감재로 활용한다.

청계천에 설치된 계단형 외장 데크도, 인천대공원 내 자동차 모형도 플러스넬로 만들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농협 등과 협약을 맺어 새 사무소를 지을 때 플러스넬을 재료로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선거 현수막을 한 장도 소각하지 않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다. 세진플러스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충북 진천군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충청북도, 제천시

등과도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공장은 협력업체 소유를 포함해 경기 남양주에 한 곳, 진천에 두 곳이 있다. 지난해 매출 15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 목표는 30억원이다. 오유림 기자



“소형 안과용 촬영기로 눈 건강 챙기세요”

▶ 으뜸중기

필로포스 ‘KUOS-0100’

2018년 설립된 필로포스는 안과용 소형 광간섭 단층촬영기기(OCT)를 생산하는 업체다. OCT는 초음파 진단기와 비슷하게 생체조직 내부를 실시간으로 단층촬영한다.

필로포스는 세계 최초로 휴대가 가능한 안과용 OCT인 ‘KUOS-0100’ (사진)을 시장에 선보이며 제품 경량화로 타 업체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KUOS-0100은 콤팩트한 크기와 5kg에 불과한 무게로 손쉽게 휴대할 수 있다. 전원 연결만으로 추가 과정 없이 즉각 촬영이 가능하다.

이 기기는 황반변성과 녹내장, 당뇨망막증 등 망막

질환을 진단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휴대가 가능한 규격으로도 고가의 대형 장비에 준하는 품질의 영상을 제공한다. 허 대표는 “최근 1억 원 내외인 해외 브랜드 장비와 비교해 가격을 3분의 1 이하인 2000만원대로 낮춰 경쟁력을 갖췄다. 정중호 필로포스 대표는 “휴대가 가능하고 무선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로포스가 미국 경쟁 업체에 앞선다”고 말했다.

필로포스가 관심을 기울이는 영역은 가정용 황반변성 모니터링 시장이다. 최근 고령화 및 식습관에 따른 망막질환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사용자가 기기를 대여하거나 구매해 집에서 안구를 촬영한 뒤 자료를 의사에게 전달하면 원격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강경주 기자



‘조희수 160만’ 춤추는 이영 장관 중소 동행축제 홍보 ... “매출 대박”

▶ 뉴스캐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도모한 ‘황금벽 동행축제’가 지난 8일 막을 내렸다. 이번 동행축제는 일찌감치 목표 매출을 초과 달성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동행축제는 지난달 24일 매출 1조2649억원을 기록해 목표치인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업계에선 동행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배경에 홍보 전면에서 나선 이영중기부 장관(사진)의 ‘동분서주’가 한몫했다고 분석한다.

이 장관은 중기부 청년 직원들과 함께 홍보 영상에 출연했다. 중기부 청사를 배경으로 대로변에서 ‘아이 윌 비 미싱 유’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영



상으로 유튜브브 누적 조회수 약 160만 회를 기록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기부는 추석 전 공공기관에 ‘황금벽 동행축제 추석선물세트’ 카탈로그를 제작·배포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직접 낸 아이디어인데 64개 기관에서 13억원 어치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영상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린 덕분에 전국 전통시장들이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는 평가다.

최형창 기자

가을 찬바람에 난방매트 시장 ‘후끈’

귀뚜라미, 자동온도 조절 신제품 경동나비엔, 듀얼온도센싱 ‘맞붙’

귀뚜라미와 경동나비엔 등 중견업체들이 잇달아 난방 매트 신제품을 출시했다.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전기 매트, 온수매트에 이어 3세대 난방 매트로 카본매트를 앞세웠다. ‘2024년형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은 아라미드 카본열선으로 난방 성능을 개선했고 160W 저전력 에코모드를 통해 전기료를 절감했다.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을 적용해 수면 시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 체온 변화에 따라 수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경동나비엔은 온수매트와 카본매트 두 트랙 전략을 내세웠다. 경동나비엔의 ‘속면매트 온수’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나가는 물과 들어오는 물의 온도를 체크하는 ‘듀얼온도센싱’ 기능이 적용됐다. ‘속면매트 카본’은 일곱 개의 열선으로 구성된 헵타코어 열선과 온도 감지 열선이 사용돼 고온 온도와 뛰어난 내구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밖에 신일전자는 ‘프리미엄 카본 카페트 매트’를 출시했고, 쿠쿠홈시스는 전자파 걱정 없는 ‘쿠쿠 DC 카본 전기 온열매트’를 내놨다.

난방 매트 시장 규모는 2012년 500억 원대에서 지난해 5000억원대까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선 매트 시장이 매년 15~2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봤다. 강경주 기자

해산 및 채굴 제품 광고(1차)
당 회사는 2023년 10월 5일 입사후추출에서 해산물...
2023년 10월 15일
주식회사 이베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0, 4층 (신사동)
홍산인 김진홍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454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23년 10월 15일 기준일로 차명하여,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있음을 아예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주식회사 이베리
경기도 의왕시 오금로15길 12, 4층 (신사동)
대표이사 김진홍

전환사채배정기준일 공고
본 회사는 전환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전환사채 인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3년 10월 25일(수요일) 오전 9시 현재 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그 소유주식 비율대로 전환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5일
주식회사 위대협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촌대로36길 12, 17층 (서초동, 미자스타디움타워)
대표이사 서성철

해산 공고(1차)
당 회사는 2023년 10월 05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이 결정되어 현재 해산절차를 진행 중 인바, 당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들의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해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가 없으면 해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주식회사 이베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0, 4층 (신사동)
홍산인 김진홍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이 회사는 2023년 10월 05일 해산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해산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위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채권 신고가 없으면 해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주식회사 이베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0, 10층 (신사동)
(마포동, 미자스타디움타워)
홍산인 김진홍

제16기 결산 공고

안경미디어그룹

BEYOND DISRUPTION
비욘드 디스러プション
파괴적 혁신을 넘어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성공의 공통점은?!
〈파괴적 혁신〉 고정관념을 깨라

SERICEO 북클럽 선정 <해버드비즈니스리뷰> 선정
세계 4대 경영사상가들이 쓴 역작!

bp.hankyung.com 안경BP

제4기 데이터센터 개발 및 운영 전문가 과정

- ▶ 부동산업계에 가장 HOT한 데이터센터
- ▶ 4차산업혁명시대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과 함께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
- ▶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2000년 53개에서 2019년 158개, 2023년 205개로 성장 예상
- ▶ 한국, 아시아의 데이터센터 전초 기지로 급부상하면서 기관투자자에게는 높은 투자 수익 가능한 투자 대상!

프로그램 개요

운영일정 2023년 10월 26일(목)~12월 18일(월)
매주 월요일(개강일만 목요일), 16:00~18:30 (총9강)

수강대상 시행사, 시공사 및 건축설계사, 부동산투자 관련 업체 (50명 정원)

교육주관 한국경제신문 및 (주)KJ금융자문

교육장소 한국경제신문 본사 3층 강당실 (2,5호선 용인역역 150m)

교육비 2,200,000원 (VAT업외)
(서울부동산포럼,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주요포럼, 한국부동산포럼 회원 한정카데미 교수료, 현장대입 수료생 100,000원 할인)

접수문의 한국경제신문 한경아카데미 김지민 과장
02)360-4045 / http://ac.hankyung.com
KJ금융자문 최기형 대표 010-9091-8952

한국경제신문